

6·25때 훼손정보 수두룩 조사도 복원노력도 없다

곡성 관음사, 문화재 복원 정부에 탄원

오대산 월정사 신라동종, 전남 곡성 관음사 원통전, 강원도 간성 건봉사(마지금니화엄경)권46, 전남 장흥 보림사 대웅전... 이것들의 공통점은 바로 한국전쟁을 전후로 소실·훼손된 불교문화재라는 데 있다.

6·25 발발 50주년을 맞아, 문화재 전문가들이 "당시 소실·훼손된 불교문화재 중에는 주목받지 못한 국보급 문화재들이 상당수 있다"며, 이에 대한 조사와 중요 불교문화재에 대한 복원의 필요성을 제기해 주목된다.

특히 전남 곡성 관음사(주지 지인)가 '관음사 복원 추진 위원회'를 결성하고, 전경으로 소실된 원통전 등 관음사 전각 복원에 정부의 지원을 공식 요구해, 이러한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러나 50여 년간 전쟁으로 소실·훼손된 문화재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학술적인 연구 성과물은 제쳐놓고 이 문제의 연구 성과도 없는 실정이다. 관련 학계 역시 "문화재 조사·보호 등의 학술적 감각이 뒤떨어졌던 당시에는 알려지지 않은 국보급 문화재도 상당수 있었을 것"이라며 "아쉬움"만을 나타낼 뿐, 대책 마련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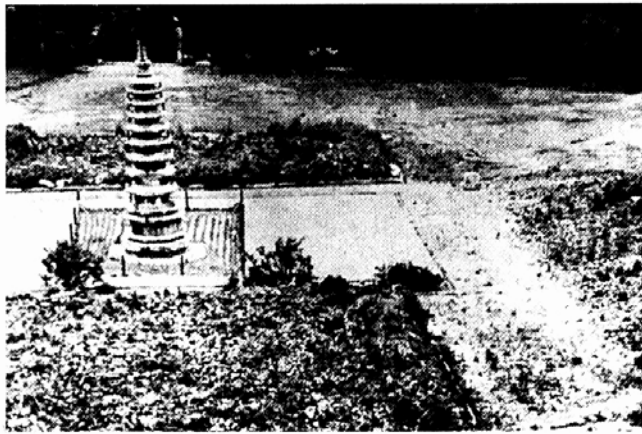
지난해부터 조계종은 전쟁의 상흔을 안고 있는 불교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준비하고 있으나, 기존의 연구와 관련 자료 등이 전무해 준비작업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계종은 이를 하반기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2001년부터 소실·훼손된 불교문화재에 대한 조사 작업에 들어갈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재정·인력·자료 등이 선결되지 불투명한 상태다.

이에 대해 황수영(동국대 명예교수) 박사는 "전란으로 소실·훼손된 문화유산의 조사 및 복원은, 그 상흔을 치유할 가장 빠른 길이자 통일 첫 걸음"이라며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당시 불교문화재가 사라졌던 현장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죽은 지금까지도 이 일에 관심을 갖는 게 아쉽다"고 말했다.

또 이 작업은 △현장 탐문 조사(목적자 중심) △문화재적 가치 평가 △문헌·사진자료 확보 △복원 등의 순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한 황 박사는 "복원에는 국가적 국민적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전쟁을 전후로 소실·훼손된 불교문화재는 지금까지 20여 개만이 알려져 있을 뿐이다. 오대산 월정사는 1951년 1·4후퇴 때 작전상의 이



◇51년 1·4후퇴 때 전각이 완전 소실되고 팔각구층석탑(국보 제48호)만 남은 월정사 전경.

유로 국군이 불을 질러, 칠불보전을 비롯해 10여 동의 전각이 소실됐다. 이때 상원사동종(국보 제36호), 성덕대왕신종(국보 제29호)에 이어 세 번째로 발견된 신라 동종(804년 제작)도 사라졌다. 강원도 간성 건봉사에 보관했던 고려시대(마지금니화엄경) 권46(당시 국보 제412호)과 동제은상 관항로(당시 국보 제419호)는 1951년 5월 폭격으로 전각이 불타 없어졌다. 강원도 원주 법천사지 지공국사 현묘담 또한 포탄으로 손상됐다. 광주 중심사의 금동석가여래입상(당시 국보 제211호)과 금동보살입상(당시 국보 제212호)은 인근 경찰서로 옮겨져 보호하다가 한국전쟁 중에 없어

졌다. 국보 제240호로 지정되었던 전남 장흥 보림사 대웅전은 포탄에 맞아 전소됐다. 송광사는 6·25 때는 아니지만 55년 절을 점령하고 있던 빨치산의 방화로 백운당(당시 국보 제111호)과 청운당(당시 보물 제404호)이 잿더미로 변했다.

"박물관과 같이 특별한 보호 장치가 없었던 고찰(古刹)의 전각과 유물 등이 더 많이 소실·훼손됐을 것"이라는 전문가의 지적이 있는 만큼 조사가 시작되면 불교문화재 피해 사례가 더욱 늘어나고, 이에 따라 복원 논의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오종욱·권형진 기자
(gobaou@buddhapia.com)

동국대 '한국불교전서' 편찬위 재기동

조선경학 연구 '힘 받는다'

한국 불교학의 잃어버린 고려, 조선시대 경학 연구에 새로운 지평이 열린다. 그 동안 '판독 능력 부족'과 '무관심'으로 사찰과 도서관에 사장되었던 사기(私記)들이 햇빛을 보게 됐다. 동국대는 <한국불교전서> 편찬위원회를 재 정비하고, "사기" "유기"를 중점을 엮은 <한국불교전서> 후속 편찬작업에 들어간다.

사기는 전통 경학에서 강론해 온 사집·사교·대교과와 과목(科目) 전반에 걸쳐 자구(字句)상·해석(解釋)상 문제되는 부분을 밝힌 주석서로, 경전 연구의 중요한 고리이자 강학(講學) 전개에 소중한 소산이다.

현존하는 사기는 대부분 조선 시대에 간행된 54종 93권. 종류별로는 화엄경류 27종 50권, 금강경류 7종 10권, 원각경류 7종 13권, 능엄경류 1종 4권, 법화경류 1종 4권, 기신류 3종 3권, 선요류 3종 4권, 도서류 1종 1권, 처문류 2종 2권, 기타류 2종 2권 등이다.

이 중에서 추봉스님(1651~1706)의 <선원재전집도서과평>, 정혜스님(1685~1741)의 <법집별행록절요사기해>와 <선원집도서

과기>, 유일스님(1720~1799)의 <도서과목법입사기> 등만이 겨우 <한국불교전서>에 수록돼 학술 연구에 이용되었을 뿐이다.

한국 불교학을 이끌어 온 독특한 맥인 사기 대부분 도서관과 사찰의 서고에 묻힌 채 영원히 사라질 운명을 처했던 것이다.

최철환(동국대 역경원) 부장은 "사기는 필사본으로 꽤 있어 판독하는 데 식견이 필요하고, 문장 해독에 남다른 실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소외됐다"며 "판독 가능한 스님·학자가 한 명이라도 더 있을 때, 편찬 작업이 시작될 다행이다"고 말했다. 그 동안 몇몇 불교학자들은, 전통 불교학이 '경학'에서 '교학' 위주로 바뀐 것도 '사기 외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지적을 제기해 왔다.

따라서 '사기' 등에 대한 <한국불교전서> 후속 편찬 작업은, 조선시대 학승들이 남긴 귀중한 '경학 자산'의 진면목을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동국대는 7월부터 사기에 대한 수집을 시작해 분류·초탈·대조 등의 과정을 거쳐 <한국불교전서>에 수록할 방침이다. 오종욱 기자

제주 수정사지 관통도로

문화유산 훼손 '탁상행정'

제주시가 고려시대 때 제주도 3대 사찰 가운데 하나인 수정사지를 관통하는 도로공사를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유적지에 대한 사전 정밀조사도 없이 사업계획을 수립했다가 문제가 제기되자 뒤늦게 발굴조사에 들어가는 등 지방자치단체가 알 장서 문화유적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시는 97년 외도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정사지를 관통하는 도로개설 계획을 세웠다가 수정사지 유적문제가 제기되자 98년 6월부터 4달

간 시굴조사를 벌였다. 이어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제주대박물관(관장 유철인)이 사지내 도로예정지에 대한 발굴조사를 벌여 건물지 12동, 고려시대 청자 등 토기 자기류 그리고 제주도내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평가 받는 인양상이 음각된 탐면석 등을 발굴했다.

제주시는 발굴된 유구와 유물을 근처 시유지 500여 평에 옮겨 복원한다 는 계획을 세우고, 이달 중순부터 수정사지를 관통하는 도로공사를 시작했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서울시 문화재로 지정된 조계사 대웅전 목조석가불좌상.

조계사 본존불-후불탱화 '지방문화재로'

조계사 대웅전 본존불인 목조석가불좌상과 후불탱화가 서울시 지방유형문화재로 지정된다. 서울시 문화재위원회는 23일 심의위원회를 열어 조계사 목조석가불좌상과 후불탱화를 지방문화재로 지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 문화재는 앞으로 30일간의 지정예고 기간을 거쳐 지정된다. 심의위원회는 "목조석가불좌상과 후불탱화는 당시 불교계가 거중단적으로 합심하여 조성한 불교사적 의

미를 뿐 아니라, 근대 불상과 불화를 대표하는 뛰어난 작품"이라고 평가했다.

1900년경 제작된 목조석가불좌상은 조선 초기 불상을 모델로 하여 근대적 기법으로 조성된 목불상이라는 점에서 근대 불상 연구의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대웅전 본존불 뒤에 봉안된 불화는 근대 불화의 거장 일우스님의 초기작품이다.

권형진 기자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티베트 정치·문화정보 제공

티베트와 달라이 라마에 대한 관심이 국내 불자들 사이에 한껏 고조된 이때, 티베트의 정치 문화를 소개하는 웹사이트 '지구 네트워크 티베트 뉴스'를 방탄해 보자.

가상공간에서 '티베트 알리기' '티베트 독립' 등을 위해 청병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이 사이트는 'http://www.tibet.ca/wtnnews.htm' 을 클릭하면 된다.

지구 네트워크 티베트 뉴스 사이트는 티베트 현지지의 뉴스뿐만 아니라 세계 유수 언론에 게재된 티베트 관련 뉴스를 비롯 다양한 문화정보를 제공하는 곳이다. 이 사이트는 1994년 브레인 기번이 개설했고, 캐나다 티베트 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 제공하는 뉴스는 한국에서 확산되고 있는 달라이 라마 방한 문제를 비롯해 세계 순회 강연법문과 에피소드, 위구르 지역의 소수민족들이 최근 중국에서 당했던 박해를 다룬 기사 등 다양하다.

또 스웨덴과 노르웨이의 티베트 위원회와도 연동 서비스를 제공한다. 두 위원회는 1995년부터 '지구 네트워크 티베트 뉴스'와 연계해 국제적인 티베트 돕기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 가운데 달라이 라마의 어록 서비스가 단연 돋보인다. 여기에는 '노벨상 수상 소감', '미국기자협회 법문', '국제참여연대의 회견연설', '평화행진 선언문', '아시아 나우(Asia Now)지 인터뷰' 등이 있으며, 열람·로딩(가져오기)도 가능하다.

이외에도 티베트 관련 서적을 주로 출판하는 '위스덤 출판사(Wisdom Books)', 인도 다람살라에 있는 티베트 망명정부 산하 '티베트 하우스(Tibet House)'의 소식도 전해준다.

오종욱 기자



학술단신

'화엄경 원인론' 강독

계원대 불교학연구소(소장 법해 스님)는 여름방학을 맞아 28일부터 8월 2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규봉 종말(760~841) 스님의 <화엄경 원인론> 원문강독 및 강의를 마련한다. (02)742-0085

성철연구 불교학 강좌

성철선사상연구원은 7월 1일 오후 2시 제15회 백련 불교아카데미 강좌를 마련한다. 불교학의 방법론을 모색하는 이번 강좌에서 김미영(고려대 강사) 박사는 '선종과 주자학의 계보학에 나타난 공부론의 경계-계보학적 방법론을 통해서'를 주제로 강의한다. (02)744-15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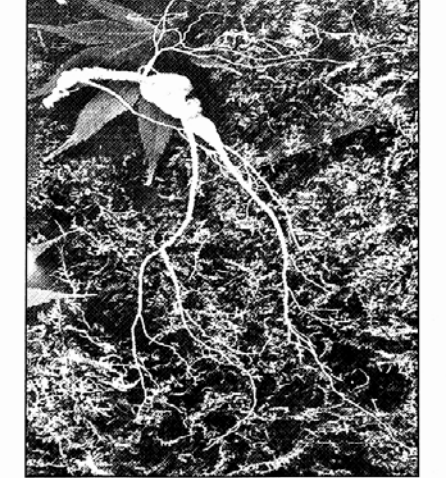
위덕대 박물관 전시실

위덕대학교는 21일 박물관 전시실을 개관했다. 위덕대 전시실은 교내 해당학술정보원 1층에 45평 규모로 마련됐다. 전시실에는 구석기시대에서 조선시대에 이르는 유물 130여점이 전시되어 있다. 이중 경주 안개사와 포항 옥명사에서 출토된 '문자기와' 등이 주목된다. (0561)760-1251

元·氣·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長腦

존경하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사명준비에 지친 수행자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정가적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7가지 下藥 125가지로 모두 3657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식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삼장뇌란?

산삼은 천중, 지중, 인중, 경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 산삼의 효능**
-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건강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 방사선병, 조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尊歌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救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몸을 精進하시옵
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처 서울 (02) 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림 보유)
- 자연산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한국생약보존(산삼) 연구협의회의 서울 「장뇌산삼」 사업부

토종 오가피의 신비

— 재배자가 직접 만들어 화제 —

舊소련에서는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오가피를 복용시켜 올림픽 및 각종 국제대회에서 놀라운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용했던 소련산 가시오가피는 그 유효성분이 우리나라 토종오가피의 25%에 불과했습니다. (노벨수상자인 독일 와그너박사의 논문에서...) 왜냐하면 오가피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광수 씨

● 事得一把五加 不用金玉滿車
(영득일파오가 불용금옥만차)
하층의 오가피를 얻으니 한마차의 금옥보다 낫구나... (本草綱目)

● 延年不老 仙經藥也(연년·불로 선경약야)
(오가피를 먹어) 수를 더하고 늙지 않으니 실로 신선의 약이로구나... (東醫寶鑑)

● Acanthopanax (오가피의 화명)
'아칸토'는 가시나무를 뜻하며 '파낙스'는 만병을 치유한다는 뜻으로 만병을 다스리는 가시나무란 이름을 가지고 있다... (공주교대 조선학박사)

■ 용내닐수 없는 것이 있다!
수신 토종오가피는 TV건강문화(i-TV 2000년 1월15일) KBS "6시 내고향", "나의 영웅체험"에 출연한 17년간 오가피를 키워온 재배자 성광수씨가 직접 재배한 100% 국내산 토종오가피로 만듭니다. 가오가피나 수입 오가피로 만든 제품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시면 오가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오가피 건강상담 : 02)447-5300